

시온 주보

제2533호
2024년 12월 8일(다해)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 사회 교리 주간)

그리스도의 세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Piero della Francesca, 1415-1492)
1437-1445, 판넬에 템페라, 167×116cm
내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입당송 |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 바룩 5,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2ㄴ-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필리 1,4-6.8-11

복음환호송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루카 3,1-6

영성체송 |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회개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공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라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의 의미는 ‘삶을 쇠신하라.’,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바꾸어라!’,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향하라.’ 등을 뜻합니다.

‘회개’는 방탕한 짓을 그만두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행동에 어긋남이 없고, 책임감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는 바리사이들이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와 가장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엄격주의, 완벽주의, 율법주의, 공로 업적주의, 우월감, 중독증(권력, 명예, 폭력), 상호 의존적 관계, 세심증, 간헐적 폭발 장애(분노조절장애), 편집증에 사로잡힌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이러한 위선자들 때문에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사도들은 일면 예수님의 외침을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1,16-20 참조)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못 알아들었음을 복음의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생각에 십자가를 지고 종이 되라는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바리사이든 제자들이든 모두 진정한 회개, 즉 그들 자신을 분명히 대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

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공관 복음에서 ‘회개하여라.’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자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공동번역 요한 1,38)

이 같은 회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 방법과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서 ~으로’라는 패턴(분열된 상태에서 온전함으로, 죄에서 은총으로, 정체 상태에서 새 삶으로의 변화)을 따르는데, 반드시 어떤 것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로 사도의 회개 역시 눈이 멀고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단번에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과 우선순위들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회개는 윤리 항목 몇 개를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내재하시는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시켜 한층 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이 아이는 본래의 자기(self)입니다. 훌륭하고, 거룩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기쁨이 가득하고, 현명하고, 희망에 차 있고, 그 자체가 선물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는 참된 자기, 내면의 아이, 성스러운 아이, 경이로운 아이, 지혜로운 아이로도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당대의 성화 가운데 이 작품은 수학적으로 가장 정교하게 그린 성화로 평가 받습니다. 작가는 구성의 균형성, 단순한 형태 그리고 빛과 부드러운 색채를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작품에 불어 넣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죄의 용서를 위한 주님의 오심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워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



장희진 로사 | 배우

30살이 막 되었을 무렵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친한 언니들이 가자는 말에 가볍게 여행가는 마음으로 따라나섰을 뿐이었습니다. 침낭을 챙겨야 한다는 언니의 말에, 저는 7세 이하 어린이들이 쓰는 귀엽고 작고 예쁜 침낭을 챙겼습니다. 예쁜 등산복에 드라이기와 화장품도 잔뜩 챙겨서 배낭에 넣고 룰루랄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순례 시작지인 생장으로 가기 위해 들른 파리 공항에서 이미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을 찾아 헤맨 지 1시간이 되었을 즈음, 외국어 하나도 못 하는데 여길 무슨 생각으로 왔나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례가 시작되고 나서, 이 불안함은 기어코 후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갖 것을 다 채운 배낭은 너무 무거워 무릎이 부서질 것만 같았고, 무릎도 다 덮지 못하는 어린이용 침낭은 너무 야속했습니다. 게다가 숙소는 기대했던 것처럼 호텔 같은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험하고 어두운 길을 여자 셋이 걷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후회는 점차 심해져, 이곳까지 저를 끌고 온 언니들이 미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홀로 가고 있는 어느 신앙 깊은 순례자를 만났습니다. 그 뒤만 졸졸 따라가면서 무사히 그 험한 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마음의 짐을 털기 위해 왔다고 고백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걷다 보니,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순례에 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저를 격려해 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이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먹고 자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비우니 더 편안하다.’라고 말이죠. ‘비워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온갖 불필요한 물건을 배낭에 가득 채우고 와서 놀기만 바랐던 제게 주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보니 공항에서는 버스를 타고 호텔까지 따라와서 길 안내를 해줬던 고마운 여학생을 만나게 해주셨었고, 어두운 저녁 길에서는 귀국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려줄 만큼 신앙 깊은 청년을 만나게 해주셨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배려해 주고 좋은 말로 격려해 주며 침낭도 돌아가면서 덮어줬던 정말 고마운 언니들을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제야 진정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의지할 때, 당신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요.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하느님에 관한 오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젊음의 날에 네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코헬 12,1)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장을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지금’이자,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연 성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더욱 위대한 것을 향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창조주이신 하느님 뜻에 맞맞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하느님의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떠올려 봅시다.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올라오나요? 주님께 무엇을 청하고 싶으신가요?**



손민제 제노비오(동작동성당)

서울성모병원 본관 출입구에 있는 성모상 앞을 지날 때면 종종 그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영혼도, 육신도 나약하고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니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지켜주소서.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돌보소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치유의 기적을 이 땅에
베푸소서.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기댈 곳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수많은 아픈 이들을 돌보소서.
모든 병에서 벗어나 기쁨 가득 누리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최유진 스텔라(길음동성당)

“주님, 당신의 ‘지금’을 내어 맡기신
저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한밤을 헤매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별빛을 밝혀주라고 부르셨으니,
당신이 보여주시는 표지인 참별들을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당신의 사도로 부르신 우리 젊은이들이
시작한 일을 기뻐하고,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 자신을 거듭 새롭게 하여
교회에 젊음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께서 꾸시는 꿈을 저도 함께 꾸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 속
한순간일 수 있도록, 제가 사는 일분일초가
당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의 매 순간이 당신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제가 하느님 당신의 ‘지금’임을 깨어 느끼게 하소서. 아멘.”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어 여러분의 젊음이 가치를 지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만의 특별함과 고유함**으로 세상에 여러분만이 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09항)

난파 후 받게 되는 두 번째 뗏목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박사 학위 공개 심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신경 쓰였던 것은 다름 아닌 참석자들이었습니다. 내 이탈리아어가 어떻게 들릴까, 교수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심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신없이 교수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려는데, 강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비로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은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어.”라는 시선이었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은 “제발 잘 통과해야 할 텐데, 심사가 너무 간간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공개 심사가 끝나고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혼자 마음의 문을 닫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한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고해성사가 부담스럽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 심판받는 기분이고, 고해 사제가 내가 누군지 알아채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해를 미루거나 형식적인 죄만 간단히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창 시절 어리석었던 저의 모습처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커다란 착오입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까지 보내시어 인간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

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고해성사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

그렇다면 우리는, 고해가 죄를 심판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성사’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이 고해성사를, “은총을 잃어버리는 난파 후 받게 되는 두 번째 뗏목”이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 뗏목이 세례 성사라면 두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즉 고해성사는 세례성사 후 하느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 뗏목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로 잃었던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받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며, 영원한 별(지옥 형벌)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약하며 종종 길을 잃지만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지었을 경우, 혹은 분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양을 되찾은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느님, 함께하시는 하느님

- 세계주교시노드 봉사 체험기



정태영 베드로 | 시노드 커뮤니케이션팀 봉사자

서울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저는 지난 10월 밀기힘들 만큼 감사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한 달간 열린 제16차 2회기 세계주교시노드에 영상 제작 봉사자로 참여하는 체험이었습니다. 밀도 높은 신앙 체험이었던 만큼 그 의미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중이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어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하느님께서 보여주는 ‘아름다움’입니다. 바티칸에서 10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생각 중 하나는 ‘아름답다.’였습니다. 비단 성당과 성화만을 두고 느낀 바는 아니었습니다.(물론 이들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요.) 제게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은, 바오로 6세 알현실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시노드 대의원들이 성령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대화하는 모습, 순교자 광장에서 교황님과 시노드 참가자들이 함께 교회 일치를 위해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던 모습, 한 달간 함께 일하던 시노드 사무국 커뮤니케이션 팀 동료들이 마지막 날 눈물로 이별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를 약속하던 모습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느님께서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깊이 느낀 것은 모든 곳에서 누구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보편성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간 머물던 곳은 바티칸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신학교 내 기숙사였습니다. 그곳에 함께 머물던 대의원과 봉사자 30여 명은 회의가 끝난 후 매일 저녁이면 삼삼오오 둘러앉아 각자 하루는 어땠는지, 신앙의 여정은 어

땠는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은 무엇인지 등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하느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내려다보이는 숙소 주변의 풍경, 로마 곳곳의 성지순례 등 그 놀라운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제게 떠오른 것은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사랑을 생생히 느끼며 머무른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그 사랑의 체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제방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저와 함께 계셨던 하느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해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시노드 기간 중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말씀이 담긴 영상을 우리 교구 SNS 채널에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주교님께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걷는 길, 시노드 여정을 모두 함께 살아가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힘주어 말씀하시던 대주교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교황님께서도, 그리고 전 세계 보편 교회의 마음이 담긴 세계주교시노드의 최종문서도 같은 목소리로 저를 초대합니다. 함께하는 여정, 시노드의 삶을 앞으로도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초월적 존재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인간은 감각기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지각없이 세상을 알아볼 수도 없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와 자연은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세상의 전부인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나 우정, 아름다움이나 믿음 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뛰어난 현대 과학이라도 실제로 검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현실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실재로 자리합니다. 이런 세계를 감지하고 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재의 독특함 때문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초월이란 얼핏 매우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삶은 이런 영역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마주합니다. 물질세계와 현실의 한계를 넘어 그 이상의 것을 향해 가려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신적인 영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랑이나 믿음 같은 비물질적 실재들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세계는 분명 우리 삶 안에 가득차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이상의 것'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지닐 수 있을 때 그는 물질의 영역을 넘어 초월로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초월적 특성을 넓은 의미에서 영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철학적 영성은 인간이 그 이상의 세계를 향해 가는 존재이며,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내려 합니다. 영혼을 뜻하는 고대 유럽어들은 모두 생명의 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영성은 생명의 원천과 인간의 인간다움은 물론,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초월적 특성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두를 넘어 그 이상의 세계로 향해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낭만주의 철학자 노발리스의 말처럼 인간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 향수를 지닌 존재입니다.

지나치게 물질적 세계에 묶여있는 현대 사회 안에서 이를 넘어서려면 초월적 특성에 대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실증적 문화에 갇힌 현대인은 그 이상의 세계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내적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근본적인 유한성과 우리 안에 가득한 모순 때문에 끊임없이 실존적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모두를 감내하면서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지닌 초월성을 직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초월적 특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모든 한계를 넘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테지요. 우리가 초월적 존재이며 이를 이해하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고향을 상기하고 그리워하는 인간의 특성이 이 초월을 향한 길에서 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12월 8일)은 대림 제2주일로 제43회 ‘인권 주 일’이며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12월 8일~14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인간 존엄성을 기억하며, 1982년부터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대림 제2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 교회 메시지 항목에서 담화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영상: <https://bit.ly/인권사회교리교육영상> (CBCK 제공)

12월 15일(대림 제3주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027 서울 WYD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개설

세계청년대회 역사와 준비기도문 등을 비롯한 각종 WYD 관련 정보는 물론,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따른 봉헌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교구 사목평의회 위원 임명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부위원장: 구요비 주교

위원: 유경춘 주교, 이경상 주교, 정영진 신부, 김연범 신부, 이재경 신부, 윤성호 신부, 이길재 신부, 김승현 신부, 최연숙 수녀, 임명자 수녀, 김상윤 신부, 유명옥 수녀, 안재홍, 석남연, 김정재, 조희진, 김진택, 임주빈, 김정영, 정지연, 정한결, 권민서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2월 12일 방영석 요셉 신부(29세)
- 1972년 12월 10일 김유룡 필립보 신부(80세)
- 1994년 12월 14일 구전회 바르톨로메오 신부(73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연행 개인전: 1전시실
글아갤리아카데미 회원전: 2전시실
김태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4일(수)~12일(목)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프로그램

오르간	매주(목) 또는 (토) 10시~16시(개인 강습+연습)	15만원 (매월)	010-8508-9384 담당 강사(문재문의요청)
전례 꽃꽂이	매주(금) 10시~13시(교구반) 매주(금) 13시~14시30분(기초반)	7만5천원 (0개월/재료비 별도)	010-5302-4593 담당 강사
수어	매주(목) 또는 (금) 19시~21시	12만5천원 (6개월)	02)995-7394 에파타성당

2024 미사를 통한 치유 특강

대상: 누구내(회비 없음, 강의 자료 드림)/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가톨릭 미사 전례에 대한 해설과 묵상
때, 곳: 12월12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과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12월10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 (화)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5년 1월5일(일)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 회비: 5만원 (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 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제69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446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함흥교구 북청 본당
문의: 02)727-2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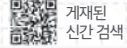
2025년도 총구역장 연수

대상: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
때, 곳: 2025년 1월4일(토) 11시~15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 회비: 2만원(12월26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인성교육 봉사자 모집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인성교육' 봉사자를 학교사목부에서 모집합니다
대상: 견진성사 받은 신자, 만 20세~60세(2005~1965년생) /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자격교육: 2025년 1월7일~9일, 14일~16일(2주간, 총 6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홈페이지에 서류양식)
접수기간: 11월26일~2025년 1월3일
회비: 10만원(30시간 특강, 식대, 간식비 포함)
문의(기타): 02)553-7320(일, 월 휴무) 학교사목부 사무실 / 홈페이지(www.kyccs.or.kr) 참조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2월21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신간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

김상인 엮음
위즈앤비즈 | 612쪽 | 2만5천원
문의: 031)986-7141

고(故) 차동엽 신부의 주일 복음 묵상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 나왔다. 2005년부터 선종 직전까지 발표했던 차 신부의 다해 전례력 주일 묵상을 모은 이 책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참맛을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신간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김정은 외 지음
도서출판동연 | 272쪽 | 1만7천원
문의: 02)335-2630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를 만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측면에서 다채로운 해석이 이루어진 인물이다. 이 책은 성경, 교부들의 문헌, 현대 가톨릭교회의 문헌, 그림, 여성 인권, 사도성 등 여러 초점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신간
요한복음
말씀여행

정월기, 전원 지음
한국통합사목센터 | 156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마태오·마르코·루카 복음서에 이어 요한 복음서의 발간으로 4복음서의 말씀여행 시리즈가 완간되었다. 이 책은 신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동시에, 소공동체 모임에 더 큰 활력을 주고 신자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영혼의 성 해설

한영만 지음
기쁜소식 | 460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성녀 데레사의 《영혼의 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각 장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실들을 연계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영성 개념들을 쉽게 해설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에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극
네 번째 동방박사

신간
큐알(QR) 스캔

때: 12월 24일(화) 16시-19시, 12월 25일(수) 16시
곳: 명동대성당 파밀리아채플 / 전석 무료
예약링크: <https://naver.me/F42DhO26>
문의: 02)3789-7702

연극 <네 번째 동방박사>가 12월 24일-25일,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 채플에서 공연된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닌 그들과 뜻을 같이 했던 '또 다른 동방박사'의 이야기다. 아기에 수님을 찾아 경배한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길을 떠났으나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시
The Art of Jewellery:
고혹의 보석, 매혹의 시간

때: 12월 6일(금)~2025년 3월 16일(주일)
곳: 롯데뮤지엄 / 문의: 1544-7744
입장료: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6천원 어린이 1만2천원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30% 할인

전시 'The Art of Jewellery : 고혹의 보석, 매혹의 시간'이 2025년 3월 16일까지 롯데뮤지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카즈미 아리카와 주얼리 컬렉션'의 최대 규모 전시이다. 전시의 공간 컨셉은 'Dark Ambience(어두운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주얼리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연출했다.

가톨릭회관 지하주차장 사용변경 안내
 12월 8일(일)부터 가톨릭회관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과 3층(B2·B3)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하 4층(B4)은 주차 전면 불가!

● 성탄봉헌금 접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안과 마당에 마련될
 구유와 제대 트리, 꽃 장식을 위한 '성탄봉헌금'을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명동대성당 세라핌 합창단 지휘자 모집
 · 자격 : 견진성사를 받은 천주교 신자이며, 정규대학
 음악전공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구비서류 : ①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추천서
 ② 음악대학 졸업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 마감 : 12/7(토)까지, 이메일 접수 mdsdca@catholic.or.kr
 ※상세문의는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 참고!

●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테너 ○명
 · 지원자격 :
 ①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 (혹은 예비신자)
 ② 다음 혼인미사 일정에 맞춰 성가단 활동 가능한 자
 * 혼인미사 일정
 - 금요일 13시, 17시 미사
 - 토요일 11시, 12시, 14시, 15시, 16시 미사
 - 주 일 11시, 14시, 16시 미사
 ③ 만 29세 미만, 음악대학 성악 전공 4학기 이상 수강한
 재학생 및 졸업생 (휴학생 가능)
 · 구비서류 : ①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② 음악대학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마감 : 12/8(일)까지, 구비서류 본당사무실 제출
 ※상세 문의는 본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 가톨릭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활 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둘째 주일 세례식 성가 봉헌
 · 대 상 : 성가를 사랑하고 성음악에 관심있는 여성 가톨릭 신자
 · 오디션 일시 : 12/15(일) 낮 12시 30분
 ·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 오디션 준비 : 자유곡 또는 가톨릭성가 중 1곡
 · 문 의 : 단장 ☎ 010-2230-0138

● 명동 3545+ 청년성서모임 말씀의 봉사자 모집
 · 대상 : 창세기 연수 수료 후 탈출기 수료 혹은 탈출기
 그룹공부 중인 천주교 청년신자
 (81~92년생/교적증명서 제출필수/미혼·기혼 무관)
 · 지원방법 : 네이버 카페 가입
 cafe.naver.com/ourbible3545 ☞ 공지참조
 · 마감 : 12/16(월)까지
 · 문의 : logos3545@naver.com

● 명동대성당 청년전례단 '쉐마' 단원 모집
 · 주요활동 : 주일 오후 7시 청년미사 전례봉사
 · 대상 : 천주교 청년신자(92년~05년생)
 · 마감 : 12/29(일)까지
 · 지원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입단신청서 및 교적증명서 제출)
 · 문의 : mdshema@naver.com
 ※자세한 일정은 지원자에게 추후 개별 공지합니다.

● 명동대성당 선교부 단원 모집
 예비신자들이 세례 받기 위한 6개월 교육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지원해줄 수 있는, 하느님
 사랑과 성실함을 갖춘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진 25~40세 교우

·활동 : 매월 시작되는 예비신자 교리반 담당 (예비신자 출결
 및 교육과정 전반 관리) 및 환영식, 세례식 등
 ·시간 :

* 교리반 봉사 - **수요일~주일 중 1일 (6개월 고정)**
 ☞ 수~금 오후 7시~9시
 ☞ 토요일 오후 3시~6시
 ☞ 주 일 오전 9시~낮 12시, 오후 3시~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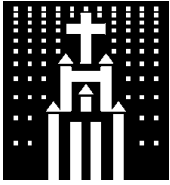
* **시례식**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청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게시글 참고
 ·기한 : 12/31(화)까지
 ·문의 : 예비신자 교리학교 ☎ 02)3407-3914
 ※신청서 접수 후 신부님·수녀님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되며, 면담 후에 봉사
 여부 최종 결정됩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작은 연주회
 「주님과 음악 사이에」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일 / 오후 3시 30분
 ·장 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하반기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첨
 ·혼인예약 : 2025년 7월 ~ 12월
 ·추첨일시/장소 : 2025/1/10(금) 오후 2시 / 대성당
 ☞ 낮 12시부터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배부합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 이중 추첨, 양도 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 불가!
 ·혼인장소 ·요일별 혼인 가능시간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	17시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본당 홈페이지→혼인성사 안내→'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구(본당) 행사로 인해 추첨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
 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2025/1/24(금)부터 홈페
 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락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진슬기(토마스) 신부
선교·교육 조인기(암브로지오)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김영우(스테파노) 신부
외국인담당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481(1-2)	봉헌 : 240, 212, 215	성체 : 167, 182, 152	파견 : 97
-------	---------------	--------------------	--------------------	---------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2024년 6월에 입교하신 예비신자분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 **연령회 월례회의** : 12/8(일) 오전 11시 코스트 홀

● **2024 명동대성당 대림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8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12월 9일 (월)	“희망의 순례자들”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첫 고 해**

·일시/장소 : 12/10(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대림 시기(12월 1일~12월 23일) 판공성사**

※대림 제 1 주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판공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 중이며, 12월 23일까지 판공성사를 보신 분들은 교적에 반영될수 있도록 꼭 제출해 주십시오. 성사표 없이 성사 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사무실에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 타본당 신자인 경우 본인 교적본당 사무실에 문의 (☞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은 '주보 하단 표' 참고)

● **성탄 집중 판공성사**

날 짜	시 간	장 소
12월 20일(금)	11:00~20:00	상설고해소
12월 21일(토)	10:00~20:00	
12월 22일(일)	10:00~20:00	
12월 23일(월)	11:00~20:00	

※12/23(월)은 성직자·수도자 및 모든 신자를 위한 고해성사로 진행됩니다!

※고해성사 휴무 : 12/24(화)~2025/1/1(수)

● **명동대성당 사무원 모집**

·인원 : 계약직 사무원 1명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可)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

● **대림 제 4 주간 화요일 미사**

† 12월 24일(화)

* 평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10시, 오후 6시

(※ 단, 오후 7시 미사 없음.)

* 밤 10시 30분 (구유 예절)

* 밤 12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주례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는 오후 9시부터 대성당 입장가능

● **주님 성탄 대축일**

† 12월 25일(수)

* 미사 : 주일미사 시간과 동일

(※ 단, 오전 7시 미사 없음.)

- 교중미사 주례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 12월 24일과 25일은 명동길에서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은 불가하고, 삼일대로 방향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만차 시 삼일대로 쪽에서도 진입 불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선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12월 15일은 대림 제 3 주일이자 자선 주일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1/25-12/1).....47,672,000
 - 대림 1 주일 헌금.....39,184,000
 - 감사헌금 (11/25-12/1).....4,320,000
- 강 아우구스티노 / 고 릴리안 / 권 루카 / 김 글라라
김 로사리아 / 김 발렌티노 / 김 베로니카 / 김 아녜스
김 요셉 / 김 요안나 / 남 마티아 / 노 베로니카 / 박 아델라
백 안젤로 / 신 글라라 / 심 알베르토 / 원 레아 / 원 레오
이 루시아 / 이 리베라도 / 이 안나 / 조 안나
조 이냐시오로올라 / 하 바틸다 / 익명(3)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고해성사 (Confession)				
	18:00, 19:00(3545+ 미사)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07:00, 18: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Fri.	16:00 - 18:00	Sat.	15:00 - 17:00	

【 감사의 3·3·3 】 하루 세 번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받는 존재가 되며,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기를
올 한해 기쁘거나 곱은일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